

# 가정의 달, 청탁금지법 화훼농가 '울상'

### 농식품부, "화훼류 특관 행사 실시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게 나타나"

1년 중 화훼류 소비가 가장 활발한 시기지만 화훼종사자들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울상을 짓고 있다. 5월은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상년의 날 등 각종 기념일이 연이어 있어 꽃 선물 수요가 크게 늘어난다.

예년 같으면 가정의 달 특수를 누렸을 터이지만, 올해는 경기 침체와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도매시장의 화훼류 거래물량은 전년동기 대비 4.3% 감소하고, 소매 거래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31.1% 감소하는 등 그 피해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연간 소비량의 약 50%가 4-5월에 집중되는 카네이션은 청탁금지법 시행, 긴 연휴, 수입산 카네이션 등으로 소비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결국 농림식품부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청탁금지법 시행 후 위축되고 있는 화훼류 소비 활성화를 위해 '가족·친지, 스승에게 감사의 꽃 선물 보내기' 등 다양한 소비촉진에 나서고 있다.

특히 홈플러스나 GS슈퍼마켓, 생활용품 전문점 등을 통해 화훼류 특관

행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실제 피부에 와 닿는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해 직무와 관련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고·의례, 부조목적이면 5만원 이하 꽃 선물과 10만원 이하의 경조회환은 제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상급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또는 동료 공직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가액을 초과해도 되고,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주는 선물은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인·허가 등 신청 자, 절차 진행 중인 계약 상대방, 조사·수사를 받는 자, 성적·평가 대상인 자 등 직접 이해관계자는 제외된다.

그리고 학생대표가 스승의 날에 공개적으로 선생님께 선물하는 카네이션이나 졸업생이 선생님을 찾아가 전 달하는 꽃 선물은 허용된다.

하지만 전주 시내 꽃집 관계자들은 "김영린법 시행이후 작년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확연한 차이가 난다"



1년 중 화훼류 소비가 가장 활발한 시기지만 화훼종사자들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울상을 짓고 있다.

며 "회환주문도 거의 끊어지고 카네이션 하나 팔기도 힘든 5월 가정의 달"이라며 장사를 접어야 할 마음이라고 털어놨다.

또 다른 관계자도 "모두가 청탁법의 뚜렷한 근거가 무엇인지 몰라 아예 꽃 선물을 제외하고 있다"며 "정부의 유연한 법 제도를 희망한다"고 하소

연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경기침체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농가를 비롯한 화훼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평소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와 스승, 친지에게 감사의 마음을 꽃으로 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농진청, 상추 신품종 '진홍미' 선보여

### 적색 발현에 문제가 되고 있는 적치마 상추 재배능가 도움 될 것

농촌진흥청은 10일부터 12일까지 경기, 충북, 충남, 전북, 경남, 제주 등 6개 지역에서 상추 신품종의 지역적 특성을 비교·검토하는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평가회에는 재배능가, 종자회사,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새로운 상추 품종들을 평가한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상추 신품종에 대한 능가 현장반응과 재배적응성, 식미 등을 평가해 상추 주산단지에도 보급할

예정이다. 현장평가회에서 소개되는 대표 상추는 '진홍미' 품종이다.

상추 재배능가에선 고온기 재배 시 생리장애, 추대(장다리), 내병성, 잎의 두께, 적색 발현이 안정된 품종을 선호하는데 '진홍미'는 이러한 요구를 모두 충족한 품종이다.

지난해 개발돼 이번엔 처음 선보이는 '진홍미' 상추는 적치마 상추로 잎이 적색으로 안토시아닌 함량이 9.0mg/100g(대조품종 열풍적치마

5.5mg/100g)으로 높으며, 수량성은 주당 65매 정도의 잎을 수확할 수 있다.

주당 무게는 평균 418g로 1일 당 무게는 평균 6.4g(일반 품종 평균 무게 5.8g)이다.

능가에선 전체 수량도 중요하지만 1일 당 무게가 많이 나가는 품종을 선호해 능가에서 인기를 끌 전망이다.

또한 쓴맛이 적고 아삭아삭한 식감이 있어 젊은 소비자층에서도 좋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재용 기자

이외에도 평가회에선 새로운 상추 소비를 주도할 반결구형인 로메인상추 '햇살적로메인' 등 총 7품종과 안토시아닌 색소가 풍부한 '일교11-12' 흑치마 계통 등 유망한 10계통도 함께 지역적응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장석우 농업연구관은 "이번에 선보이는 '진홍미'는 고온기 시설재배에서 적색 발현에 문제가 되고 있는 적치마 상추 재배능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품종"이라며, "도시 텃밭에도 여름상추 재배로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대학생·구직자 입사회망 공기업 1위는 '한전'

대학생 및 구직자가 가장 입사하고 싶은 공기업으로 한국전력공사가 뽑혔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대학생·구직자 169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전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철도공사

가 각각 1~3위에 올랐다.

한전은 전체 응답자의 8.3%가 입사 희망 1순위로 꼽았으며 건강보험과 코레일은 각각 7.3%와 5.3%의 지지를 받았다. 이어 인천국제공항공사(5.1%)와 국민연금공단(5.1%), 한국토지주택

공사(4.3%), 한국수자원공사(4.1%), 한국전력기술(3.8%), 강원랜드(3.7%), 한국과학기술원(3.6%) 등이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

'공기업에 입사하고 싶은 이유'로는 '정년보장 등 안정성'이 꼽혔다. 37.3%에 달하는 응답자가 안정성면에서 공기업을 선호했다. 뒤를 이어 '정시퇴근 등 근무환경'(23%)과 '사내복

지 및 복귀후생 혜택'(14.1%), '높은 연봉'(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기업 취업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14.6%가 '출신학교(학벌)'라고 답했다.

이어 '인턴 등 실무 경력'(13.8%)과 '자격증'(12.3%), '인재상 부합'(11.7%), '인맥'(10.1%), '전공'(9%) 등을 꼽았다. /인재용 기자

## 도내 경제인들, 대통령에게 바란다

### 전북의 중요한 현안, 차질없이 진행해야

#### 전주상공회의소 이선홍 회장

새로 당선된 대통령은 선거기간 동안 지역, 계층, 세대 간으로 분열된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과 공존을 실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탈피와 기업의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들을 과감히 철폐해 기업인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더불어 선거기간 동안 전북 도민에게 약속한 새만금사업의 조속 완료,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준차, 국제공항 건설, 팜버리대회 유치 등 전라북도의 중요한 현안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

특히,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위축된 기업경영환경을 회복시켜 국민경제를 안정적인 궤도에 올려놓아야 할 것이다.

또한 추락한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중심의 경제구조

특히 우리 전북이 호남 내에서도 가장 소외되고 차별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북의 독자적인 권역 설정과 더불어 전북출신 인재 등용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

## 경제 주체, 모두가 균등하게 발전해야 한다

#### 소상공인연합회 전주지회 고한석 회장

이제 제19대 대통령선거는 끝이 났다. 후보들마다 내 건 공약 중 국민복에 부합하는 정책은 받아들여졌으면 한다.



과제가 우선 반영됐으면 한다. 소상공인 사전 평가제, 복합쇼핑몰 인허가 및 영업 제한, 카드수수료 인하 등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들이 하나씩 이뤄져 우리들이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가 내건 10대 정책

그동안 정책 유착을 일삼던 재벌 대기업이 잘 못된 관행과 적폐를 도려내고, 건전하게 상생할 수 있는 경제환경을 만들어 대기업과 소기업이 함께 공존하는 경제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 전북여성경제인협회 박영자 회장

사상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대통령 보궐선거가 치뤄졌다.



전 대통령, 정치인들로 인한 큰 실망과 고통, 아픔을 겪은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치유해주는 대통령이면 좋겠다.

선거에 출마한 14명의 후보자들 중에서 한사람만 당선됐지만 결과는 국민 모두의 승리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국민들과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각자의 전문분야의 사람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국정을 수행해 나갔으면 한다.

선거과정에서의 표출된 여러가지 갈등과 아픔은 모두 묻어 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 당선자와 정당은 노력해주길 바란다.

또,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고,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이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각종 인프라 제도를 정비하고 능력과 열정을 가진 여성들이 중도에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각종 제도를 개선해주기를 바란다.

너무 긴 시간동안 국가경제부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_ 두 번째 이야기

#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 등교시간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달라진 모습이에요? 부모님과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힘들었던 아침수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 조이현 (군산남고 1학년)

“가만히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몇 마디 전내는 대화 속에서 그동안 서먹해졌던 관계가 신기하게도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신혜원 (두 아이의 엄마)

“확실히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허둥지둥 뛰어 오는 아이들이 줄어서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수업준비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 박은희 (옥구초 교사)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만보는 학교 문화

이것이 행복한 학교는 학생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줄이는 원천 기정의 '보급차' 역할을 재검토하기 위해 시작된 따뜻한 교육정책입니다.